



2025년 1월 12일(제1229호) 주님 세례 복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그리스도의 세례, 나의 세례”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을 통해서 성탄 축제가 끝이 납니다. 제대 앞의 구유도 치워지고, 내일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 때부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 뒤에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선포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세례로 자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도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세례성사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세례성사를 모든 이의 사명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바로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세례가 아니라,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그 세례, 그리스도가 명령한 바로 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때 하늘에서 들린 말씀처럼 우리도 그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딸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받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 역시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세례와 같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받았고 바로 그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나 나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 당신 마음에 드는 딸로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세례 축일로 다시 연중이라는 일상을 삽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교 받고, 그리스도가 명령한 그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때 하늘에서 들린 그 목소리가 나에게도 똑같이 들렸음을 함께 기억하고서, 용기 있게 나의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김형래(대진인드레이) 신부  
인산해군(인산해역방위사령부)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42,1-4.6-7

회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 2 독 시

사도 10,34-3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루카 3,15-16.21-22

영성제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동장부부 순교자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1.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슬프고 어려운 시절을 당하여, 이 자식의 마음을 아뢰려 하니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과 사 년 동안 헤어진 심정을 직접 글로 써서 올립니다.

비록 이 딸자식이 죽는 지경에 이르러도,  
너무 상심하여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배반하지 마시고,  
부디 마음 편히 순명하십시오.

주님께서, 다행히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치명(순교)의 은혜를 주시거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지금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은  
진실로 뿔뿔하지 못한 일입니다.

쓸데없는 자식이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치명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오면,  
비로소 어머님께서도, 가히 자식을 두었다고 할 것이요,  
저도 또한 뿔뿔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동장부부 순교자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산성지

복 음 록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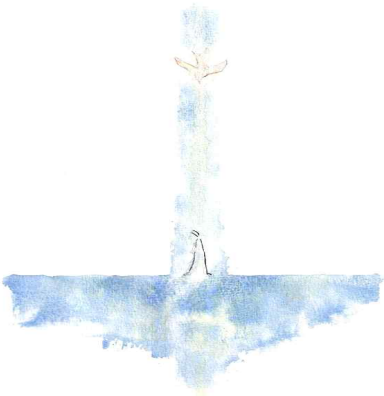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대는 나의

그대는 나의  
귀한 이입니다.

내게 당신도  
그러한 이입니다.

그대는 나의  
좋은 이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세례받으시는 주님



페루지노와 페루지노의 제자들 공동 제작 / 1482년경 작  
335 × 540cm / 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시스티나 경당 전체 조감도

중앙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알은 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예수님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천사들로 둘러싸인 우주를 상징하는 구 안의 하느님이 계신다. 예수님 뒤에는 천사 3명이 예수님이 몸을 닦으실 수 있는 타월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으며, 그 뒤로는 세례를 받기 위해 탈의한 3명의 남성이 보인다. 세례자 요한 뒤로는 방금 세례를 받은 이가 수건으로 발을 닦고 있다.

그림 왼편 뒤쪽에는 시간적으로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데, 세례자 요한이 둔덕 위에서 군중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장면이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왼쪽과 대칭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둔덕 위에서 모인 이들에게 설교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전경에는 이 그림의 후원자(주문자)였던 식스투스 4세의 친인척 및 동시대 인물들을 그려내었다.



오른쪽 세부도



중앙 세부도



왼편 뒤쪽 세부도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세례 축일: 남상대 김창중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가브리엘(정보사) 성당 사목방문  
    때: 1월 12일(주일)
- 사제평의회 / 참사회의  
    때·곳: 1월 13일(월),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 2025년 사제 피정  
    때·곳: 1월 13일(월)~17일(금),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각진성사의 해” - “상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사도 1:8)